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

문우일*

1. 들어가며

페르난도(G. Charles A. Fernando)는 요한복음에서 율법(νόμος)은 예비 단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구속사 전개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 내지 상보적인 관계로 해석했다.¹⁾ 그러나 이 글은 요한복음의 사랑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단순하고도 온건한 계승이 아니라, 예수와 요한 공동체를 꺾박한 자칭 “모세의 제자들”(요 9:28)과 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한 해석학적 항변임을 밝히려 한다.²⁾ 이를 위하여 율법과 사랑의 긴장을 간파한 판카로(Severino Pancaro)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겠다.³⁾ 판카로의 율법 해석은 대체로 타당하지만, 마틴의 사회학적 가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율법은 유대적이고 사랑의 계명은 반(反)-유대적이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판카로의 견해를 푸글세스(Kåre Sigvald Fuglseth)의 사회학적 이론으로 수정함으로써 유대-반유대라는 이원론

*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 1) G. Charles A. Fernando,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Love in the Gospel of John: A Detailed Scientific Research on the Concepts of Law and Love in the Fourth Gospel and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Frankfurt: Peter Lang, 2004).
- 2) 본고에서 우리말 성경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을 사용한다.
- 3) Severino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Supplements to Novum Testamentum XLII* (Leiden: E. J. Brill, 1975).

적 해석을 자제하고, 율법뿐 아니라 사랑도 유대 전통에 뿌리박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⁴⁾ 판카로는 암니아 회의를 통해 모세의 제자들이 유대 정통성을 계승하였고, 요한 공동체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르기조차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이 글은 요한복음의 예수와 제자들은 결코 모세의 제자들에게 유대 정통성 계승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제한한다.

방법론으로는 먼저, 요한 공동체와 모세의 제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규명하려는 사회학적 이론들을 전제하되, 특히 요한 공동체를 “종파”(sect)가 아닌 새로운 “신앙 체계”(cult)로 정의한 푸글세스의 가설을 도입한다.⁵⁾ 또한 요한복음이 기존 전통들을 선택적으로 삼아 그것을 어떻게 ‘이중 의미어’(二重意味語, double entendres)로 해체하여 요한 공동체를 위한 새 계명으로 재구성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문학 비평 이론들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⁶⁾ 전개 순서는 먼저, 선행 연구들과 그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율법과 사랑에 관한 용어들을 분석하겠다. 이어서 모세의 제자들과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유대 계명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가를 보여주고, 요한복음이 모세 제자들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기작을

4) Kåre Sigvald Fuglseth, *Johannine Sectarianism in Perspective: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emple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he Gospel of John, Philo, and Qumran* (Leiden: Brill, 2005).

5) Ibid.

6) ‘이중 의미어’란 두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의미를 표방하는 한 단어로서 일부러 그 모든 의미들이 동시에 살아나도록 수사학적으로 의도된 단어를 가리킨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중 의미어 기법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James L. Resseguie, *The Strange Gospel: Narrative Design & Point of View in John* (Leiden: Brill, 2001), 51-58. 상호텍스트성에 관하여는 다음을 보라. Stephen Hinds, *Allusion and Intertext: Dynamics of Appropriation in Roman Poet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Dennis R. MacDonald ed.,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Richard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문우일, “상호텍스트성에서 미메시스비평까지,” 『신약논단』 19 (2012), 313-351.

설명하겠다.

2.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에 관한 선행 연구 비평

믹스(Wayne A. Meeks)의 평대로, 판카로의 수정된 박사 학위 논문은 요한복음의 율법에 관한 개념들을 치밀하게 분석한 최초의 단행본이다.⁷⁾ 판카로는 요한복음의 율법 기능을 이중 의미어 개념으로 분석했는데, 1부에서 예수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유대인들의 율법 개념을 다루었고, 2부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예수에게 호의적인 율법 개념을 다루었다. 3부에서는 앞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율법 개념이 어떻게 빌라도 법정에서 동일한 결과, 곧, 예수는 “율법에 따라”(κατὰ τὸν νόμον) 죽어야 한다는 결과를 낳았는가를 규명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는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형당해야 하고, 예수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이 예고한 하나님의 구속적 의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의 대속적 죽음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4부에서는 율법을 뜻하는 용어들과 상징들을 분석했다. 요한복음에서는 νόμος 외에도 다음 표현들이 율법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αὐτοῦ) ποιεῖν]와 유사한 표현들(요 4:34; 5:30; 6:38-40; 7:17; 9:31);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다”[τὸ ἔργον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ποιεῖν]와 유사한 표현들(요 4:34; 5:20, 36; 6:28, 29; 7:21; 9:3-4; 10:25, 37, 38; 14:10, 11, 12; 17:4); “그 말씀(들)을 지키다”[τηρεῖν τὸν λόγον (τοὺς λόγους)](요 8:51, 55; 14:23, 24; 15:20; 17:6); “그 계명들을 지키다”(τηρεῖν τὰς ἐντολάς)(요 14:15, 21; 15:10); “생명의 떡”(요 6:26-34, 49-50); “살아있는 물”(요 4:10-15); “생명의 빛”(요 8:12). 5부에서 판카로는 책 전체를 요약하고,

7) Wayne A. Meeks,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The Torah and the Gospel, Moses, and Jesus, Judaism and Christianity According to John by Severino Pancaro,”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6:2 (June, 1977), 311-314.

마틴(James L. Martyn)의 사회학적 가설을 토대로 하여 요한복음 1:17을 모세와 예수 사이의 반체, 율법과 은혜 사이의 반체로 해석한다.⁸⁾ 즉,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파문 당한 유대-기독교인들, 즉 요한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한편, 판카로는 모세의 율법(the Torah)이야말로 모세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어받은 “종교·국가적 유업”(religious-national heritage)으로서, “얌니아 회의”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 “ 획일적인”(monolithic) “정통 유대교”(orthodox Judaism) 내지는 “규범적 유대교”(normative Judaism)가 되었다고 주장했다.⁹⁾ 이에 믹스는 얌니아 회의를 통하여 유대교가 “획일화”되었다는 판카로의 주장은 랍비 전승사 분야의 권위자인 뉴스너(Jacob Neusner)나 유대 신비주의를 연구한 솔렘(Gershom Scholem)의 견해와 동떨어지며, 탄나임 문헌의 다양성도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판카로가 설정한 요한복음의 역사적 정황마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¹⁰⁾

또한 판카로는 요한복음에서 “율법”이란 “정통 유대교” 내지는 “규범적 유대교”에 관한 “매우 유대적”(very Jewish)인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판카로에게 “유대적”이란 모세와 율법 전통에 국한된 것이다.¹¹⁾ 그러나 얌니아 회의 이후에도 유대교 안에는 모세 전통 외에 지혜 전통, 묵시 전통, 신비주의 전통 등이 공존했으며, 이들이 서로 융합·견제하면서 외래적 요인들과 다채롭게 교감했던 것이다. 특히 필자는 요한복음이 유대 전통들 가운데 솔로몬과 지혜 전통에 근거한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도입하여 유대교의 다른 전통인 모세 전통을 일부

8) James L. Martyn,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org. ed. 1968).

9)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295, 495, 519-520.

10) Meeks,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The Torah and the Gospel, Moses, and Jesus, Judaism and Christianity According to John by Severino Pancaro,” 314.

11)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295, 519-520.

견제하고 일부 포용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¹²⁾

더구나 판카로는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믿어 율법을 배반하고 유대 회당에서 파문당했으므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여길 권리가 없었으나, 본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들”만 유대인이라는 현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요한복음 곳곳에 *Ἰουδαῖος*라는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된다고 주장했다.¹³⁾ 또한 판카로는 요한복음에서 *Ἰουδαῖος*는 “정통 유대인들”(orthodox Jews)을, *Ἰσραήλ* 또는 *Ἰσραηλίτης*는 유대-기독교인들(요한 공동체)을 가리킨다고 제안했다.¹⁴⁾ 요한복음이 “이스라엘(의)”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함은 니고데모와 나다나엘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요 1:31, 47, 49; 12:13).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ήλ)이지만 영으로 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예수의 제자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인”(ἀληθῶς Ἰσραηλίτης: 요 1:47)이다. 이는 요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과연 요한 공동체가 얌니아 회의 이후에 패권을 잡은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이라 인정하고, 정작 자신들은 유대인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매우 소극적으로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까? 무엇보다

12) Woolf Moon,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A Reading of Love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1); 문우일,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가나 혼인잔치와 아가서의 상호텍스트성,” 『신학과 선교』 40 (2012), 211-250; 문우일, “솔로몬 전승으로 분석한 요한복음의 예수: 요 1:47-49; 10:19-24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 (2012), 123-146.

13)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295, 511. 유대교에서 파문당한 이들이 요한 공동체의 초기 구성원들이었다는 마틴의 주장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ἀποσυνάγωγος(요 9:22; 12:42; 16:2)라는 형용사에 근거한다.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에 관하여는 다음을 보라. Wayne A. Meeks, “‘Am I a Jew?’-Johannine Christianity and Judaism,” *Christianity, Judaism, and Other Greco-Roman Cults: Studies for Morton Smith. Part One: New Testament*, J. Neusner, ed. (Leiden: E. J. Brill, 1975), 163-186; R. Alan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25-132.

14)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295.

ἀποουνάγωγος(요 9:22; 12:42; 16:2)라는 단어가 암니아 회의와 비르카트 하-미님(ברכת המינים)의 여파로 유대 회당에서 쫓겨난 염세적인 요한 종파를 상징한다는 마틴과 판카로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사도행전에서 개종 전 바울은 유대 회당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맹렬하게 핍박하고 잡아가는데, 이는 비르카트 하-미님과 상관없이 유대 회당에서 축출 당한 예수 추종자들도 있었음을 시사한다(행 9:2; 26:11). 게다가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 자의식을 상실했다는 심리적 정황을 지지하지 않는다. 판카로는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 주류에서 밀려난 종파였다는 마틴의 가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요한복음이 예수를 “유대인”(요 4:9)이자 “유대인의 왕”(요 18:33; 18:39; 19:3, 14, 19, 21)이라 정의하는 사실을 간과한다. 더구나 요한의 예수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ἡ σωτηρία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στίν: 요 4:22)고 선언하지 않는가? 이는 유대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유대인 자의식이 분명한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 내부인을 “유대인”이라 칭하는 본문들도 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예수)를 믿었다”(πολλοὶ οὖν ἐκ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ἱ ἐλθόντες πρὸς τὴν Μαριάμ καὶ θεασάμενοι ἃ ἐποίησεν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요 11:45); “그(나사로)를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ὅτι πολλοὶ δι’ αὐτὸν ὑπήγ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αὶ ἐπίστευον εἰς τὸν Ἰησοῦν: 요 12:11).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요 11:45; 12:11); ②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칭 “모세의 제자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요 5:37-43; 8:23, 44; 9:28); ③ 나머지 유대인들. 이 세 가지 부류의 유대인들을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유대인”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을 가리키는지는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요컨대 요한의 예수와 하나님의 자녀들(요한 공동체)이 대립한 대상

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인 것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유대 전통의 정당한 계승자이며, 예수 오심으로 완전해진 유대 전통을 유대성의 한계를 넘어 온 세상에 선포하려는 이들로 묘사한다. 푸글세스의 표현을 빌자면, 요한 공동체는 유대 전통에 집착하여 세상을 배척한 “종파”가 아니라, 유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하여 일부 적대자들의 저항에도 세상에 진취적으로 뻗어간 새로운 “신앙 체계”였던 것이다.¹⁵⁾ 마틴의 영향으로 믹스는 요한 공동체를 ‘종파’로 해석하고 요한복음의 사랑을 내부인만을 위한 폐쇄적인 계명으로 해석했으나, 필자는 푸글세스의 가설에 기초하여 요한복음의 사랑을 유대 전통의 계승이자 확장으로 해석한다.¹⁶⁾

한편,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단행본은 페르난도(G. Charles A. Fernando)의 박사학위 논문이다.¹⁷⁾ 페르난도에 따르면, 요한복음 전반부(1-12장)에 등장하는 율법은 후반부(13-21장)에 등장하는 사랑으로 가기 위한 절차요 예비 단계로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가 계시한 사랑에서 완성된다. 페르난도는 요한복음 저자가 “반-율법주의자”(antinomian)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예수에

15) Fuglseth, *Johannine Sectarianism in Perspective*.

16) 요한 공동체를 ‘종파’로, 요한의 사랑을 종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이론에 대해서 는 다음을 보라. D. Moody Smith, “Johannine Christianity: Some Reflections on its Character and Delineation,” *NTS* 21 (1941-45), 222-248; Ernst Käsemann, *The Testament of Jesus: A Study of the Gospel of John in the Light of Chapter 17*, G. Krode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8); Wayne A. Meeks,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1 (1972), 44-72; Oscar Cullman, *Der johanneische Kreis, Sein Platz im Spätjudentum, in der Jügnerschaft Jesu und im Urchristentum* (Tübingen: Mohr Siebeck, 1975); John Bogart, *Orthodox and Heretical Perfectionism in the Johannine Community as Evident in the First Epistle of John*, SBL Dissertations 33 (Missoula: Scholars, 1977); Raymond E. Brown, *The Community of the Beloved Disciple: The Life, Loves and Hates of an Individual Church in New Testament Times* (New York: Paulist Press, 1979);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29 (Garden City: Doubleday, 1966).

17) Fernando,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Love in the Gospel of John*.

게 “부정적이지 않다”(not negative)는 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요한복음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사랑 사이의 긴장을 간과한다. 요한복음은 νόμος라는 용어를 때로는 ‘예수 적대자들의 율법 해석’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페르난도는 이에 대하여 부주의하다. 더구나 νόμος가 요한복음 전반부에만 등장한다는 페르난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비록 후반부에서 그 빈도수는 줄어들지만 그 심각성은 오히려 심화되는 것이다. 후반부에서 유대인들의 νόμος는 예수를 죽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요 15:25; 18:31; 19:7). 이에 필자는 다음 장에서 관련 용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요한복음에 사용된 율법 및 율법과 유사한 용어들

자칭 “모세의 제자들”(μαθηταί Μωϋσέως: 요 9:28)인 예수의 적대자들은 사랑보다 “율법”을 앞세운다.¹⁸⁾ ‘율법’이라는 말은 아가페보다는 로고스에 가까운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율법과 비슷한 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의와 용례 파악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율법과 비슷한 말 중에 “계명”(ἐντολή)이 있다. 율법서인 모세오경에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래 계명은 율법에 가깝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계명이 모세의 율법과 대립하기도 한다.¹⁹⁾ 전술했

18) 이하 본고에서 “율법”이라 함은 νόμος를 뜻하고 “계명”이라 함은 ἐντολή를 뜻한다.

19) 율법과 계명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을 보라. Gottlob Schrenk, “ἐντέλλομαι, ἐντολή,” *TDNT II*: D-H, Gerhard Kittel, ed., Geoffrey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c1964-c1976), 544-556; H. Kleinknecht and W. Gutbrod, “νόμος, ἀνομία, ἄνομος, ἔννομος, νομικός, νόμιμος, νομοθέτης, νομοθεσία, νομοθετέω, παρανομία, παρανομέω,” *TDNT IV*: L-N, Gerhard Kittel, ed., Geoffrey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c1964-c1976), 1022-1091; 제임스 D. G. 던, 『바울신학』, 박문재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09-251.

듯이 판카로는 요한복음에서 율법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열거했는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νόμος, γραφή 및 έντολή만 다루겠다.

3.1. 율법, 모세, 아브라함

요한복음에서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은 νόμος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서로 대립한다. 요한복음에서 νόμος는 총 15회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5회는 모세와 함께 언급된다(요 1:17, 45; 7:19, 23; 8:5). 70인역(이하 LXX)은 ηἱου라를 주로 νόμος라 번역하고, 가끔 νόμιμα 또는 προστάγματα, έντολή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ηἱου, ηἱ, מִצְוָה, 등도 종종 νόμος라 번역한다.²⁰⁾

유대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ὁ πατήρ ἡμῶν: 요 8:39, 53)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σπέρμα Ἀβραάμ)이자 “모세의 제자들”(μαθηταί Μωϋσέως)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아도 예수는 모르는 예수의 적대자이다(요 8:33, 37, 39: 9:28, 29). 이들은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다”(ἡμεῖς νόμον ἔχομεν: 요 19:7)고 선언한다.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도 율법을 “우리 율법”(ὁ νόμος ἡμῶν: 요 7:51)이라 칭한다. 이들에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율법을 어겼으므로 “율법에 따라”(κατὰ τὸν νόμον) 사형을 당해야 할 자이며(요 5:16, 18; 9:14, 16; 19:7), 예수 추종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로서 저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요 7:49).

이에 대하여 예수는 적대자들이 추앙하는 아브라함과 모세 전통에 호소하여 적대자들을 반격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이가 바로

20) 던에 따르면, ηἱου는 이후 유대교 내에서 율법이나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과 성경 해석, 또는 여호와의 뜻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했고, 여성으로 의인화되기도 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νόμος보다 넓은 개념이다(던, 『바울신학』, 213; 클라르크 네트와 구트브로트, “νόμος, ἀνομία, ἄνομος....”)

예수 자신이므로 모세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요 1:45; 5:46). 또한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으나, 정작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요 8:39-58). 저들이 야말로 율법을 어겼으니 모세에게 고소당할 자들이다(요 5:45; 7:19). 이런 주장들 이면에는 유대 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창조 세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선재성(pre-existence)을 바탕으로 예수를 유대 조상들 및 율법과 차별화한다. 예수는 본래 위(τὰ ἄνω)에 속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μονογενής; 요 1:14, 18; 3:16, 18)로써 아래에 속한 것들(τὰ κάτω)과 태생적·존재론적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모노게네스”는 플라톤에서 초월자의 속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영원한 존재(τὸ ὄν αἰεί)로서, 영원히 생멸하기를 반복하는 것(τὸ γινόμενον αἰεί)과 구별된다.²¹⁾ 전자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후자는 존재와 무관하게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현상에 불과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선재하는 창조자 로고스의 육신적 현현이자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써(요 1:1-14; 17:24), 모세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다(요 8:58). 영원한 존재인 예수는 덧없는 현상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초월하며, 역사적 율법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 직접 받아서 요한 공동체에게 완전하게 전달한다. 요한 공동체도 예수의 선재성에 편승하여 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더는 모세의 율법에 속박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덧없는 속성을 증거하는 이는 예수가 아니라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요 8:52); “너(예수)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요 8:53).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21) ‘위’(τὰ ἄνω)와 ‘아래’(τὰ κάτω), ‘영원한 존재’(τὸ ὄν αἰεί)와 ‘영원히 변하는 것’(τὸ γινόμενον αἰεί), 그리고 ‘독생자’(μονογενής) 등에 관하여는 Plato, *Timaeus* 27d-28a, 31b, 62c-d, 92c를 보라.

이 죽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한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한계를 독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위에 속한 예수와 요한 공동체에게 역사 속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닌 “너희 조상”(ὁ πατήρ ὑμῶν)이다(요 8:56). 율법은 ‘우리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νόμον, 요 7:19)이요, “모세의 율법”(ὁ νόμος Μωϋσέως: 요 7:23)이며, “너희 율법”(ὁ νόμος ὁ ὑμέτερος, 요 8:17; ὁ νόμος ὑμῶν: 요 10:34; 18:31)이고, “그들의 율법”(ὁ νόμος αὐτῶν: 요 15:25)이다. 또한 광야에서 받은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함으로써 예수는 모세의 권위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호소한다(요 6:32).

3.2. “그 글자/성경”(ἡ γραφή)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떨어지는 것을 “천지”가 없어지는 것에 견주었으나(마 5:18; 눅 16:17), 요한복음에서 νόμος를 폐하지 않으려는 이들은 예수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들”이다(요 7:23). 예수는 νόμος가 아니라 “그 글자/성경”(ἡ γραφή)을 폐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요 10:35).²²⁾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νόμος가 아니라 ἡ γραφή다: “이 글자/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성취”(πλήρωμα νόμου ἢ ἀγάπη)라고 요약했으나(롬 13:8-10; 갈 5:14),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νόμος가 아니라 γραφή다.²³⁾

“그 글자/성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헨헨(Ernst Haenchen)도 해석하기를 어려워한다. 일반적으로 복수 αἱ γραφαί는 “성경”을, 단수 ἡ γραφή

22) Cf.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521-522.

23) 요한복음 13:18; 17:12; 19:24; 19:36.

는 “특정 성경 구절”을 뜻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²⁴⁾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구약 성경 구절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²⁵⁾ 바레트(Charles K. Barrett)는 “그 글자/성경”이란 일반적 의미로 “구약 성경”을 뜻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한다.²⁶⁾

그런데 다음 가정법 목적절들은 성취되어야 할 “그 글자/성경”이 “그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ἵνα ἡ γραφή πληρωθῆ(요 13:18; 17:12; 19:24; 19:36)

그 글자/성경이 성취되도록

ἵνα τελειωθῆ ἡ γραφή(요 19:28)

그 글자/성경이 마무리되도록

ἵνα πληρωθῆ ὁ λόγος Ἡ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πληρωθῆ(요 12:38)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ἵνα πληρωθῆ 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 ὅτι ἐμίσησάν με ὄψεσθε(요 15:25)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나를 무고히 미워했다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ἵνα πληρωθῆ ὁ λόγος ὃν εἶπεν ὅτι οὐκ ἀπώλεσα ἐξ αὐτῶν οὐδένα(요 18:9)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까, 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ἵνα ὁ λόγος τοῦ Ἰησοῦ πληρωθῆ(요 18:32)

24) 복수 αἱ γραφαί가 성경(the Scripture)을 지칭하는 용례: 마태복음 21:42; 22:29; 26:54, 56; 마가복음 12:24; 14:49; 누가복음 24:27, 32, 45. 단수 ἡ γραφή가 성경 구절을 칭하는 용례: 누가복음 4:21.

25) Ernst Haenchen, *John 1: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1-6*, Robert W. Funk, trans., Robert W. Funk and Ulrich Busse, ed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85.

26) Charles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London: S.P.C.K., 1967), 168.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요한복음 12:38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그 말씀”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넓게 나타났느냐”(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καὶ ὁ βραχίον κυρίου τίνοι ἀπεκαλύφθη)인데, 이것은 이사야 53:1/LXX에 기록된 헬라이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요한복음 15:25에서 성취되어야 할 말씀, “저희가 무고히 나를 미워하였다”(ἐμίσησάν με δωρεάν)는 다음 시편과 상응한다. “나를 무고히 미워하는 자들”(οἱ μισοῦντές με δωρεάν: 시 35:19/LXX 34:19 및 68:5/LXX 69:4). 요한복음은 주어를 내포한 3인칭 단순 과거 직설법 능동태 동사(ἐμίσησαν: they hated)를 쓰고, 시편은 정관사와 함께 분사를 명사적 용법으로(οἱ μισοῦντές: those who hate) 쓴다는 차이만 있다. 유사한 주제가 시편 109:3(LXX 108:3), 119:161(LXX 118:161) 및 120:6(LXX 119:7)에도 등장한다. 요한복음은 성취되어야 할 이 시편의 말씀들을 “그들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ὁ λόγος ὁ ἐν τῷ νόμῳ αὐτῶν γεγραμμένος)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같은 시편이라도 “그들의 율법”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에 공존한다. 예컨대, 요한복음 19:24에서 성취되어야 할 글자/성경은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이며, 이것은 시편 22:18에 상응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시편을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라 하지 않고, “그 글자/성경”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나 “그 글자/성경”은 대부분 이사야서 및 시편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며, 지혜 문헌으로 분류되는 시락서와 비슷한 것도 있다.²⁷⁾

또한 요한복음은 명사 γραφή의 동류 동사인 γράφειν을 사용하여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기도 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ἔγραψεν)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예수다(요 1:45); “제자들은 주의 전을

27) 요한복음 13:18과 시락 12:17; 요한복음 19:28과 시락 19:32.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기록된(γεγραμμένοι) 것을 기억하였다”(요 2:17; cf. 눅 20:17; 22:37). 즉,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음 세 가지로 표현한다. ① 성취되어야 할 “그들(유대 권력자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② 성취되어야 할 “그 말씀”, ③ 성취되어야 할 “그 글자/성경.”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어야 할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아닐 때도 있다. 요한복음 18:32에서 “성취되어야 할 그 말씀”은 바로 “예수의 말씀”(ὁ λόγος τοῦ Ἰησοῦ)인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동등하게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본문에서도 성경과 예수의 말씀은 동등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ἐμνήσθησαν) 그 글자/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τῆ γραφῆ καὶ τῷ λόγῳ ὃν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을 믿었더라”(요 2:22; cf. 요 2:17; 12:16).

3.3. 계명

율법과 비슷한 용어들 가운데 “계명”(ἐντολή)이 있다. 70인역이 ἐντολή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מִצְוָה, פְּרִיט, מִצְוָה, רַבֵּי, רַח, תִּרְבָּ 등이 다. 슈렌크에 따르면, 헬레니즘 교육을 많이 받은 요세푸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ἐντολή보다 νόμος를 선호한다.²⁸⁾ 즉, ἐντολή가 νόμος보다 더 유대적인 용어인데, 요한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νόμος로, 예수의 말은 ἐντολή로 표현한다. 요한복음에서 ἐντολή와 ἐντολαί는 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11:57), 예수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말씀으로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해 준 계명/말씀을 뜻한다.²⁹⁾

28) Schrenk, “ἐντέλλομαι, ἐντολή,” 546-547. 요세푸스의 현존 작품에서 ἐντολή는 약 78회, νόμος는 약 527회 등장한다. 필로의 현존 작품에서 ἐντολή를 10회 이내, νόμος는 약 576회 등장한다.

마태복음에서 율법사는 율법 중에 큰 계명(ἐντολή μεγάλη ἐν τῷ νόμῳ)이 무엇인지 묻는다(마 22:36). 율법이 계명들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에베소서에는 “계명들로 이루어진 율법”(ὁ νόμος τῶν ἐντολῶν)이라는 표현을 쓴다(엡 2:15). 또한 누가복음은 십계명을 νόμος라 칭한다(눅 10:25). 사도 바울은 ἐντολή와 νόμος를 혼용하면서 이 둘이 죄를 알게 한다고 한다(롬 7:8-9). 바울은 십계명을 λόγος ἐντολή, 그리고 νόμος 등으로 표현한다(롬 13:9; 갈 5:14). 야고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νόμος라 부른다(약 2:8).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은 적대자들의 강령을 “율법”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ἡ παράδοσις τῶν ἀνθρώπων)이라 한다. 이에 상응하는 마가공동체의 강령은 “하나님의 계명”(ἡ ἐντολή τοῦ θεοῦ)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막 7:8).³⁰⁾ 마가복음에서 “그 계명”(ἡ ἐντολή)은 십계명을 뜻하고, 마가는 십계명을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한다.

결론적으로, ἐντολή는 νόμος를 구성하는 각각의 계명이나 여러 계명을 일컫기도 하지만, 저자에 따라 ἐντολή와 νόμος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더욱 자주 사용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νόμος를 ‘모세의 율법’ 내지는 ‘예수 적대자들의 율법 해석’이라는 뜻으로 사용할지라도, 요한복음이 유대 율법 전체나 유대인 전체를 배척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한복음은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이나 계명을 뜻하는 ἐντολή를 사용하여 예수의 계명을 표현할 뿐 아니라, 전술했듯이 유대 문헌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여러 말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비판한 것은 모든 유대인, 모든 유대 전통, 모든 율법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초기 구성원들을 박해한 ‘일부 유대인’과 ‘그들의 율법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한 공동체는 모든 유대인에게 쫓겨난 염세적인 종파가

29) 요한복음 12:49; 14:15, 21; 15:10.

30) 참조하라, 마가복음 7:9; 15:3; 마태복음 15:3.

아니라, 유대 율법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새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진취적인 신앙 체계였다.

4. 사랑과 계명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 예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 등을 대변하는 개념이므로, 사랑과 말씀(λόγος, λόγοι, ῥῆμα 또는 ῥήματα), 사랑과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것을 판카로는 “언약적 사랑”(covenant love)이라 부른다.³¹⁾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지시하는 용어들은 ἀγάπη, ἀγαπᾶν, φίλος, φιλία는 없음), φιλεῖν 등이며, 각각 7회, 36회, 6회 및 13회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은 요한복음에서 총 63회 사용되었으나, 마태복음에서 14회, 마가복음에서 6회, 누가복음에서 31회 사용되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케 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어 문헌에서 흔히 사랑을 지칭하는 명사 ἔρωσ나 동사 ἐρᾶν을 사용하지 않으나, 이들과 동류 동사인 ἐρωτᾶν은 28회나 사용한다.³²⁾ ‘묻다’는 뜻을 가진 ἐρωτᾶν은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주로 사용되며, 특이하게도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³³⁾

4.1. 서로 사랑

31)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432.

32) 동사 ἐρωτᾶν이 ἔρωσ 동족어라는 설명은 다음을 보라, Plato, *Crat.* 398d.

33) 공관복음서는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προσεύχεσθαι 또는 δέεσθαι를 사용하지 않, 요한복음은 이 두 동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방향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내리사랑과 치사랑이다. 내리사랑은 창세전부터 있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요 17:24). 이 사랑은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져 세상에 알려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여기서 내리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계명을 주어 보낸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계명(ἐπιτολή)을 주셨으니, 곧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이라”(요 12:49).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므로 계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고, 아들은 제자들을 사랑하므로 계명을 주어 세상에 보낸다.³⁴⁾ 이와 달리 치사랑은 받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리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ἐπιτολαί)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ἐπιτολαί)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9-10).³⁵⁾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계명을 매개로 사랑한다는 사상은 구약 성경 십계명 맥락에서 등장한다: “나(여호와)를 사랑(אה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사랑(רחם)을 베푸느니라”(출 20:6; 신 5:10).³⁶⁾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계명을 통해 사랑할 뿐 아니라, 그 계명의 내용도 사랑에 관한 것이다.

34)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3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요 14:15);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참조하라, 요한복음 10:18; 12:49, 50; 13:34; 15:12;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431-451.

36) 참조하라, 신명기 7:9; 11:1, 13; 여호수아 22:5; 느헤미야 1:5; 시편 119:47, 48, 127; 다니엘 9:4; 로마서 13:9; 요한일서 5:2, 3; 요한이서 1:6.

새 계명(έντολή καινή)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άγαπάτε ά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άγαπάτε άλλήλους)
(요 13:34).

체포되기 직전, 죽음에 임박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άγαπάτε άλλήλους)라고 네 번이나 당부한다.³⁷⁾ 외형상 “새 계명”은 이웃 사랑만을 표방하지만, “내(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예수의 이중적 사랑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자들은 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한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새 계명은 공관복음에서 십계명의 두 골자인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요한복음의 서로 사랑하기란 제자들을 “끝까지”(εις τέλος) 사랑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먼저, 예수가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것과 같아야 한다(요 13:14-15).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되, 항상 맺어야 한다(요 15:1-5, 8, 16).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야 한다(요 12:24-26). 이것을 예수는 친구를 위하여 영혼을 내려놓는 ‘가장 큰 사랑’(μεγίστη άγάπη)으로 묘사한다(요 15:13).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는 제자들을 “종”(δούλος)이 아니라 “친구”(φίλος)라 부른다(요 15:15).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내(아들)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요 12:47).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 그 백성조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우리가 그(육신이 된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

37) 요한복음 13:34; 15:12, 17.

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χάρις καὶ ἀλήθεια)가 충만하더라”(요 1:14).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חַסְדִּים וְאֱמֻנָה**에 상응하며, 70인 역이 통상 ἔλεος καὶ ἀλήθεια라고 번역하는 표현임이 널리 인정되므로, “사랑(자비)과 진리”로 해석할 수 있다.³⁸⁾ 이것이 17절에서는 정관사와 더불어 등장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ἡ χάρι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요한복음은 예수와 모세를 차별화하고, 사랑(은혜)과 율법을 구별하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요한복음은 율법 시대 이전의 창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선제적 사랑 관계에 호소함으로써 유대 정통성을 계승한 적자는 모세와 그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4.2. 새 계명과 십계명

신약 성경에 깃든 예수 전승은 하나님과 안식일에 관한 계명보다 인간에 관한 계명을 강조하고,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해석한다. 공관복음은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 관한 “계명들”(αἱ ἐντολαί)만을 열거하여 영생의 방편으로 천거함으로써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다(마 19:16-22;

38) 시편 24:10과 84:11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חַסְדִּים וְאֱמֻנָה**가 등장하는 본문들(창 24:49; 47:29; 출 34:6; 수 2:14; 삼하 2:6; 15:20; 시 25:10; 26:3; 36:6; 40:12; 57:11; 61:8; 85:11, 15; 86:15; 89:15, 33, 34; 99:5; 100:5; 108:5; 117:2; 잠 3:3; 20:28)을 참조하라.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4; Pancar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540. 김철해는 카이퍼(Lester J. Kuypers)에 근거하여 **ἔλεος**를 “실수할 수 없는 사랑”이라 해석한다. 김철해, “요한복음에 사용된 율법(νομός)의 한 연구: 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론적 해석,” 『신약연구』 11:2 (2012), 57-91, 78; Lester J. Kuypers, “Grace and Truth: An Old Testament Description of God, and Its Use in the Johannine Gospel,”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18 (Jan. 1964), 3-19.

막 10:17-22; 눅 18:18-23). 마가복음 12:28-31과 마태복음 병행절 (22:36-40)은 모든 계명을 두 종류의 사랑,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한 뒤에, 그것을 “첫째 계명”(ἐντολή πρώτη), “큰 계명”(ἐντολή μεγάλη), “가장 큰 계명”(μεγίστη ἐντολή)이라고 특별하게 명명한다.³⁹⁾ 유사하게 야고보서도 이웃 사랑을 “왕 같은 율법”(νόμος βασιλικός)이라 부른다(약 2:8).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도 무수한 가르침과 이론들을 “두 개의 우두머리”(δύο τὰ ἀνωτάτω κεφάλαια)로 요약하지만, 필로는 십계명 해석에서 사랑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⁴⁰⁾ 따라서 십계명의 일부를 열거하거나 전제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요약하여 특별하게 부르는 것은 예수 전승의 특징일 가능성이 있다.⁴¹⁾

이런 전승의 흔적은 사도 바울의 글에도 나타난다. 바울은 십계명 가운데 인간에 관한 계명만을 언급한 다음에, 공관복음과 약간 다르게,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사랑으로 요약하고, 그것을 “한 말씀”(εἷς λόγος)이라 부른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39)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한 사례는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십계명 중에 포함될 뿐 아니라, 십계명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등장하기도 한다. 특이하게도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십계명을 재해석한 다음에, 이웃 사랑과 타국민 사랑으로 마무리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8);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레 19:34). 이런 전통이 예수 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마태복음은 이웃 사랑을 원수 사랑까지 확대한다(마 5:43-44; cf. 눅 6:27, 35).

40) Philo of Alexandria, *De specialibus legibus* 2.63.

41) 로도프(Willy Rordorf)에 따르면, 초대 기독교에서 입례식으로 세례를 거행할 때 십계명을 사용하게 했으며, 그 여파로 유대인들은 입례식에서 십계명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Willy Rordorf, “Beobachtungen zum Gebrauch des Dekalogs in der vorkonstantinisch Kirche,” *The New Testament Age: Essays in Honor of Bo Reicke*, W. C. Weinrich, ed. (1984), 2, 431-442.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롬 13:9); 온 율법(ὁ πᾶς νόμος)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εἰς λόγος)에 이루었나니...(갈 5:14).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새 계명”(ἐντολή καινή)도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하고 명명한 예수 전승의 반영일 수 있다. 전술했듯이, 공관복음처럼 요한복음의 새 계명도 외형상 인간끼리의 사랑을 강조하고, 이웃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함축한다. 더구나 브룩(George J. Brooke)은 요한복음 7-10장에 십계명 전체가 내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⁴²⁾ 먼저, 하나님에 관한 1-3계명들이 수전절(요 7:2) 맥락에서 순서대로 등장한다(요 10:30, 33, 25).⁴³⁾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은 장막절 맥락에서 암시된다: 안식일(요 7:23; cf. 5:18); 아버지 공경(요 8:49; cf. 5:23); 살인(요 7:19; 8:40, 44; cf. 5:18); 간음(요 8:41);⁴⁴⁾ 도적질(요 10:1, 8, 10); 거짓 증거(요 8:14, 44); 탐욕(요 8:44).

무엇보다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논쟁한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 계명들과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고소한다(요 5:10, 18; 9:16). 이에 예수는 계명을 모두 지켜 아버지를 사랑하고(요 14:31; 15:10), 아버지와 같이 안식일에 일했으며(요 5:17; 7:17, 23),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않고) 영화롭게 했다며 자신을 변호한다(요 5:43; 10:25; 12:13, 38).⁴⁵⁾ 예수도 십계명에

42) George J. Brooke, “Christ and the Law in John 7-10,” *Law and Religion: Essays on the Place of the Law in Israel and Early Christianity*, Barnabas Lindars, ed. (Cambridge: James Clarke, 1988), 102-114.

43) 본고에서 십계명의 순서는 레위기가 아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순서를 따른다.

44) 간음의 주제는 간음한 여인에 관한 요한복음 7:53-11에도 나타나지만, 이 기사는 오래된 사본들이 지지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이에 관한 문서 비평을 보라,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335-336;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490-493.

45) 요한복음이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여호와와 이름에 관한 제3계명 때문일 수 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요

기초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공격한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요 7:19). 예수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겨 1계명과 7계명을 어겼고(요 8:41, 42, 44),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2계명을 어겼으며(요 5:42; 7:23), 안식일 계명에 갖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니 4계명도 어겼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자신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ὁ πατήρ ἡμῶν Ἰβραάμ ἐστίν, 요 8:39)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니 5계명도 어겼으며, 예수를 죽였으니(요 7:1, 19; 8:37, 40, 44) 6계명도 어겼다. 저들은 절도요 강도로서(요 10:1, 10; 12:6), 거짓말을 하고 탐심(ἐπιθυμία)을 내었으므로 8-10계명을 위반했다(요 8:44).

5. 나가며

요한복음에서 율법은 유대인을, 사랑은 이스라엘(요한 공동체)을 대변한다는 이분법적 해석은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너무 단순화시킬 뿐 아니라, 반유대적 해석의 위험조차 있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유대인과 유대 전통 전체에 대한 반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요한 공동체 초기 구성원들을 회당에서 파문시킨 일부 유대 권력자들에 대한 반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요한 공동체가 정통 유대교에서 밀려나 자신들만 알아듣는 언어로 자신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며 세상과 결별한 종파였다는 가설은 요한복음의 우주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잃어내지 못한 편파적인 것이다. 푸글세스가 지적했듯이 요한복음은 자칭 모세의 제자들과 같았을 뿐, 콤파 종파와는 달리, 다른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과는 드러내놓고 갈등한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요한 공동체가 과거 유대 전통을 고집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 전통과 결별했다고 볼 수도 없다. 모세 율법과 십계명에

12:28);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요 17: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요 17:26).

대한 무자비하고 문자적인 해석에 맞서, 요한의 예수는 유대 전통의 다른 지류(지혜 전통)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와 같은 십계명을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요한복음은 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것은 저들의 율법으로 어떤 것은 말씀/성경으로 분류했는데, 성경에 적힌 율법과 글자 자체를 너희 것과 우리 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두 해석에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해치는 율법 해석은 “저들의 율법”이고, 사람을 살리는 해석은 “예수의 말씀”인 것이다. 저들의 율법보다 우선하는 예수 말씀의 권위를 요한복음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만물을 창조한 원리요 주체인 말씀에 호소한다. 요한복음은 플라톤적 우주론과 이원론을 상기시키는 용어들을 도입하여, 예수의 본질을 선재적 말씀과 모노게네스의 현현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예수가 존재론적으로 모세와 율법보다 우월함을 주장한다. 모세와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비(非)존재적 현상에 불과한 반면, 예수는 도무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선재적 진리요, 영원한 존재인 것이다.

<주요어>

요한복음, 율법, 사랑, 새 계명, 말씀, 십계명, 요한 공동체

<Key Word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aw, Love, New Commandment, Decalogue, the Ten Commandments, the Johannine Community

* 접수일 2013년 2월 23일, 수정일 2013년 3월 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3월 2일

참고문헌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Hesiod, Glenn W. Most, ed. and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Philo, F. H. Colson and G. H. Whitaker, trans., 1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9-1962.
- Plato, Harold North Fowler, et al., trans., 1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1935.
- Plutarch, *Lives*, Bernadotte Perrin, trans., 1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1926.
- Plutarch, *Lives, Moralia*, Frank Cole Babbitt, et al., trans., 1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7-2004.
- Nag Hammadi Codices I-VIII*, Leiden: E. J. Brill, 1972-1984.
- 김철해, “요한복음에 사용된 율법(νομός)의 한 연구: 생명신학에 근거한 기독교론적 해석,” 『신약연구』 11:2 (2012), 57-91.
- 문우일,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가나 혼인잔치와 아가서의 상호 텍스트성,” 『신학과선교』 40 (2012), 211-250.
- 문우일, “솔로몬 전승으로 분석한 요한복음의 예수: 요 1:47-49; 10:19-24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 (2012), 123-146.
- 문우일, “상호텍스트성에서 미메시스비평까지,” 『신약논단』 19 (2012), 313-351.
- 제임스 던, 『바울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Barrett, Charles K.,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London: S · P · C · K, 1967.
- Bogart, John, *Orthodox and Heretical Perfectionism in the Johannine Community as Evident in the First Epistle of John*, SBL Dissertations 33, Missoula: Scholars, 1977.
- Brooke, George J., “Christ and the Law in John 7-10,” *Law and Religion: Essays on the Place of the Law in Israel and Early Christianity*, Barnabas Lindars,

- ed., Cambridge: James Clarke, 1988, 102-114.
- Brown, Raymond E., *The Community of the Beloved Disciple: The Life, Loves and Hates of an Individual Church in New Testament Times*, New York: Paulist Press, 1979.
-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29, Garden City: Doubleday, 1966.
- Cullman, Oscar, *Der johanneische Kreis, Sein Platz im Spätjudentum, in der Jüngerschaft Jesu und im Urchristentum*, Tübingen: Mohr Siebeck, 1975.
- Culpepper, R. Alan,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Fernando, G. Charles A.,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Love in the Gospel of John*, Frankfurt: Peter Lang, 2004.
- Fuglseth, Kåre Sigvald, *Johannine Sectarianism in Perspective: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emple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he Gospel of John, Philo, and Qumran*, Leiden: Brill, 2005.
-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Haenchen, Ernst, *John 1: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1-6*, Robert W. Funk, trans., Robert W. Funk and Ulrich Busse, ed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Hinds, Stephen, *Allusion and Intertext: Dynamics of Appropriation in Roman Poet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Käsemann, Ernst, *The Testament of Jesus*, G. Krodel,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8.
- Kleinknecht, H., et al., “νόμος, ἀνομία, ἄνομος, ἔννομος, νομικός, νόμιμος, νομοθέτης, νομοθεσία, νομοθετέω, παρανομία, παρανομέω,” *TDNT IV: L-N*, Grand Rapids: WM. B. Eerdmans, c1964-c1976, 1022-1091.
- MacDonald, Dennis R., ed., *Mimesis and Intertextuality in Antiquity and Christianity*,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1.
- Martyn, James L., *History and Theology in the Fourth Gospel*, 3rd ed.,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org. ed. 1968.
- Meeks, Wayne A.,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The Torah and the Gospel, Moses, and Jesus, Judaism and Christianity According to John by Severino Pancaro," *JBL* 96:2 (1977), 311-314.
- Meeks, Wayne A., "'Am I a Jew?'-Johannine Christianity and Judaism," *Christianity, Judaism, and Other Greco-Roman Cults: Studies for Morton Smith. Part One: New Testament*, J. Neusner ed., Leiden: E. J. Brill, 1975, 163-186.
- Meeks, Wayne A.,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BL* 91 (1972), 44-72.
- Meeks, Wayne A., "Moses as God and King," *Religions in Antiquity*, J. Neusner ed., Leiden: Brill, 1968, 354-371.
- Meeks, Wayne A., *The Prophet-King: Moses Tradition and the Johannine Christology*, Leiden: E. J. Brill, 1967.
- Moon, Wool,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A Reading of Love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11.
- Motyer, Stephen, *Your Father the Devil?: A New Approach to John and 'the Jews'*, London: Paternoster, 1997.
- Pancaro, Severino, *The Law in the Fourth Gospel, Supplements to Novum Testamentum XLII*, Leiden: E. J. Brill, 1975.
- Schrenk, Gottlob, "ἐντέλλομαι, ἐντολή" *TDNT II: D-H*, Grand Rapids: WM. B. Eerdmans, c1964-c1976, 544-556.
- Smith, D. Moody, "Johannine Christianity: Some Reflections on its Character and Delineation," *New Testament Studies* 21 (1941-45), 222-248.

<초록>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

문우일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이 글은 요한복음의 율법과 사랑을 탐구한다. 페르난도(G. Charles A. Fernando)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가 전한 사랑은 상보적인 것으로서 율법은 사랑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2001). 그러나 페르난도의 주장은 요한복음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사랑의 계명이 빚어내는 긴장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페르난도와 달리 판카로(Severino Pancaro)는 마틴(James L. Martyn)의 사회학적 가설(1968)을 도입하여 요한복음에서 율법과 사랑 사이의 긴장은 요한 기독교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 당한 정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판카로에게 사랑은 유대인 정체성을 상실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종파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며, 율법(노모스)은 1세기말에 암니아 회의에서 정통 유대교로 승인 받은 바리새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글은 사랑을 요한 종파(sect)의 덜 유대적인 개념으로, 율법을 정통 유대교의 매우 유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판카로의 해석을 재고한다. 대신 요한 공동체는 모든 유대교와 결별한 종파가 아니라 유대 일부 집단과만 대립한 신앙 체계(cult)였다는 푸글세스(Kåre Fuglseth)의 가설을 도입하여, 요한복음의 사랑 개념도 율법 못지않게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개념이라고 제안한다. 율법과 사랑은 여호와와 계명들에 대한 서로 다른 두 해석인 것이다. 율법은 유대 지도자들의 계명 해석이요, 사랑은 요한 공동체의 계명 해석이다.

<Abstract>

The Law and Love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Lecturer, Wooil Mo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law and love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 Charles A. Fernando argued that the law given through Moses does not stand against love revealed by Jesus but the former is complementary and preparatory to the latter in John (2001). His suggestion, however, does not reflect strong knowledge of scholarly discourse on the tension between the Mosaic law and Jesus's love commandment in John. Severino Pancaro interprets the tension by adopting James L. Martyn's sociological hypothesis about the segregation of the Johannine Christians from the synagogue of Pharisaic Jews (1968). For Pancaro, love represents the sectarian view of Jewish Christians, who can hardly identify themselves as Jews, while the law (nomos) the traditional view of Judaism confirmed as orthodox by the Council of Yamnia in the late first century A.D. This paper reconsiders Pancaro's extreme dichotomy between the less Jewish love of Johannine sectarianism and the very Jewish law of orthodox Judaism. Kåre Fuglseth redefines the Johannine community not as a sect but as a cult which manifested tension only with a certain group of Judaism rather than with Judaism itself. Relying on his hypothesis, this paper proposes that both the law and love in John are firmly rooted in the Jewish tradition: The law and love signify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God's commandments: the former is of the Jewish leaders and Jesus's opponents in John while the latter is of the Johannine community.